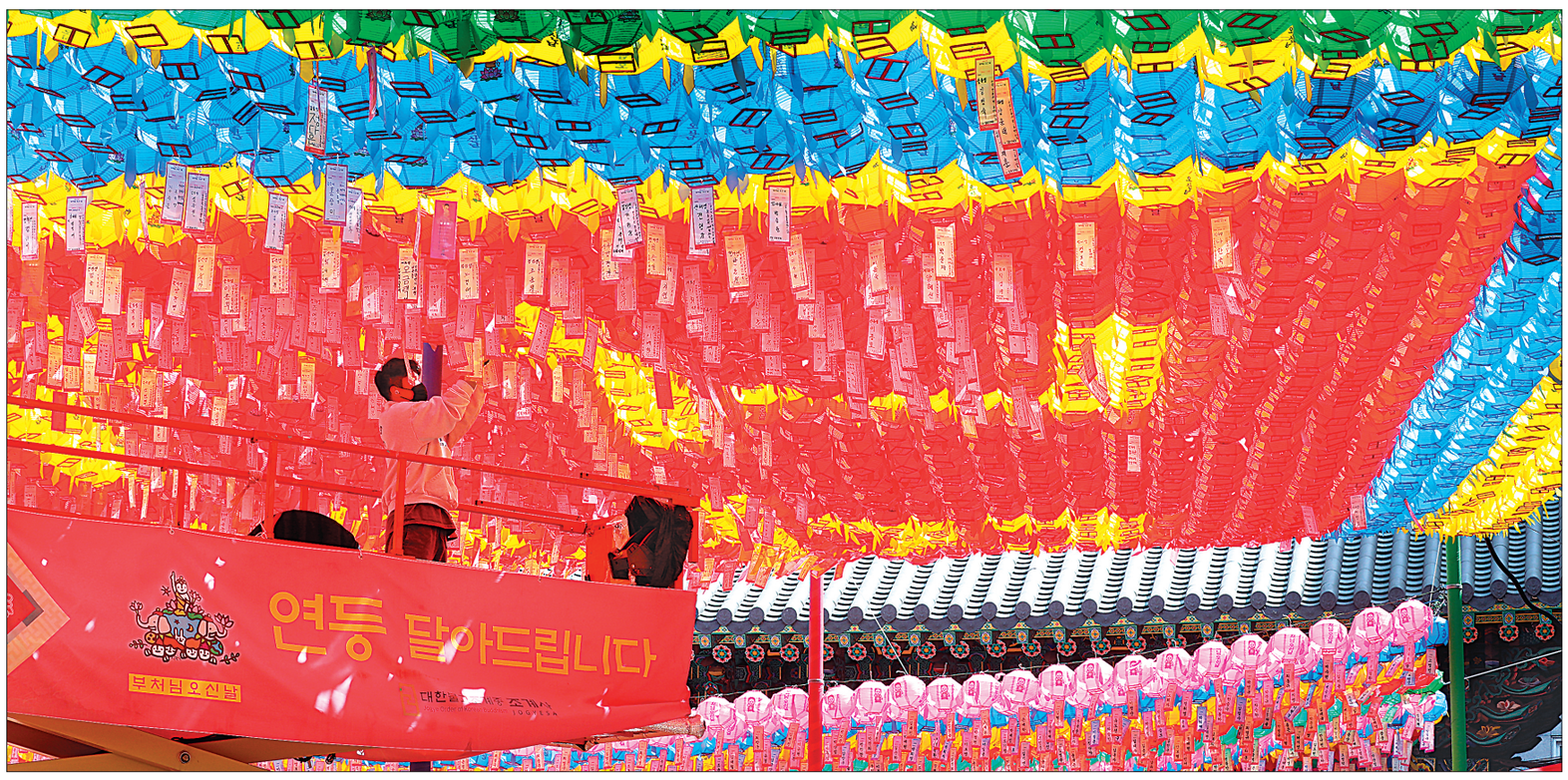
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3월 27일)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맘껏 즐기는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시작했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음껏 부처님오신날을 즐기지 못했던 불자들과 일반 대중은 다시 열리는 연등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가득하다. 사진은 서울 조계사가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연등을 도량에 장엄하는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흥천사 동종’ 고난 유랑사, 끝 안보인다

문화재위 궁능분과 회의서 건립될 보호각 위치 변경 보고

덕수궁→고궁박물관 입구 변경
“불교계, 흥천사와 협의 했었나”
불교계 위원, 일제히 문제 제기

학계 · 시민단체 ‘환지본처’ 주장
전문가들 “흥천사로 환수 타당
야외 보존 · 전시 적철치 않아”
“동종이 왕실유물인가” 지적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운의 성보 ‘흥천사명 동종’(보물)이 다시 보호각 아래 박물관 야외 전시물로 전락할 위기다.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4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흥천사명 동종 보호각 건립 위치 변경’에 대해 문화재청의 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화재청은 “보존처리 완료 예정인 흥천사명 동종의 보호각을 덕수궁 즉조당 북측에 건립하려 했으나 부지 내 자재 반입과 동종 운반의 어려움이 있다”며 “흥천사명 동종의 보호각을 국립고궁박물관 입구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에 보고했다. 보호각의 모양은 8각 형태이며, 지상 1층 · 높이 4.8m 규모다.

이에 불교계 측 궁능문화재분과위원들은 불교계와의 협의가 없었고, ‘흥천사’ 사찰명이 명확한 성보문화재를 박물관 야외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궁능문화재분과위원들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조가 발원해 조성된 흥천사명 동종은 1504년(연산군 10년) 12월 화재로 흥천사가 불타고, 1510(중종 5년) 사리각까지 전소되며 갈 곳을 잃고 유랑해왔다.

512년 동안 사찰을 떠나 이곳저곳을 유랑했던 흥천사명 동종은 그만큼 아픔도 적지 않다. 조선 전기 대표 범종임을 인정받아 2006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때까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흥천사명 동종은 덕수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수정액 등으로 종 내부에 낙서까지 해놓을 정도로 방치됐었다.

불교계와 학계는 “흥천사명 동종이 유랑을 끝내고, 흥천사로 환지본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12월에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 학술대회에서도 흥천사명 동종의 원만한 보존을 위해 본래 자리인 흥천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흥천사명 동종의 환지본처를 주장했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연산군 당시 유생들이 불을 질러 흥천사가 전소됐지만, 연산군은 이를 불문에 부쳤다. 사실상 국가 권력의 비호 아래 사찰이 사라진 것이고, 이로 인해 흥천사명 동종의 유랑이 시작됐다”면서 “사찰의 성보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의미가 있고, 현재 새롭게 일신한 흥천사라면 동종의 보존관리 역량도 충분하다. 이제는 그 유랑을 끝낼 때”라고 강조했다.

범종 전문가인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도 “야외에 보호각을 세워 보존하는 것은 범종 보존에 좋은 방안이 아니다. 그냥 전시품 정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타종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본래 사찰인 흥천사로 이운하는 방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흥천사명 동종의 연구와 보존을 위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살펴야 한다. 문화재청이 불교계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찰 성보문화재가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상근 문화재환수연대 대표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유물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보존 · 전시하는 곳”이라며 “흥천사명 동종이 조선 왕실에서 발원했지만, 어디까지나 사찰 성보로서 조성됐다. 이를 왕실 유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흥천사 역시 동종의 환지본처를 바라고 있다. 흥천사 주지 각밀 스님은 “덕수궁에서 경복궁 고궁박물관으로 이동하려 한다면 정릉 능침사인 흥천사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재청은 우선적으로 조계종을 찾아 흥천사명 동종의 보호각 건립에 대해 설명하고 불교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조선 왕실과 불교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문화재인 흥천사명 동종에 대한 최적의 보존 · 전시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조계종 문화부를 방문해 보호각 건립 취지와 활용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찰로의 환수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궁능유적본부 다른 관계자는 “흥천사명 동종은 사찰명이 확인되지만, 현재 소유는 국가 소유로 돼 있다. 이를 사찰로 돌려주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에 대한 정책 변화와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임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 선출

19일 원로회의서 만장일치로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심임의장에 前수석부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사진〉가 선출됐다. 또 수석부의장에는 무봉 성우 대종사, 차석 부의장에는 두산 일면 대종사가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4월 19일 제68차 회의를 열고 4월 말 원로의원 임기만료를 앞둔 원로의장 세민 대종사의 후임으로 대원 대종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대원 대종사의 원로의장 임기는 前원로의장 세민 대종사의 임기만료일인 12월까지다.

이날 회의는 원로의원 19명 중 1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원로회의는 회의에 앞서 임기만료를 앞둔 세민 대종사와 정련 대종사, 지성 대종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前원로의장 세민 대종사는 “원로의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기에 오늘 회의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원로 스님들의 덕화로 중책을 맡았고 무사히 소임을 다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늘 함께해주신 헌신과 노고에 종도들을 대표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원로 대종사님들의 경륜, 지혜로움은 언제나 소중하다. 우리에게 당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들이 순조롭지 못하지만 오늘 원로회의에서 선출되실 원로회의 의장단과 원로의원 대종사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 선출에 이어, 수석부의장에는 성우 대종사, 차석 부의장에는 일면 대종사가 만장일치 선출됐다. 또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추천된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와 전 포교원장 도영 대종사를 신임 원로의원에 선출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 2566년 조계종 불자대상
최민정 · 함종한 · 구자욱 · 박대섭 · 피아비


최민정 함종한 구자욱 박대섭 피아비

5월8일 봉축법요식서 시상식

불기2566년도 불자대상 수상자로 최민정 · 함종한 · 구자욱 · 박대섭 · 피아비 씨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원행, 총무원장)는 4월 21일 회의를 열고 불자대상 수상자로 최민정(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함종한(헌정정각동우회 회장), 구자욱(프로야구 선수), 박대섭(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회장), 스롱 피아비(프로당구 선수)를 선정했다.

‘불자대상’은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불교의 위상 제고에 공로가 큰 불자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가 19번째다.

올해 불자대상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2022년 봉축 표어의 의미에 맞춰 선정되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8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추모 특집 B1~B8

농선 대원 선사의 전등록 30권, 화엄경 81권 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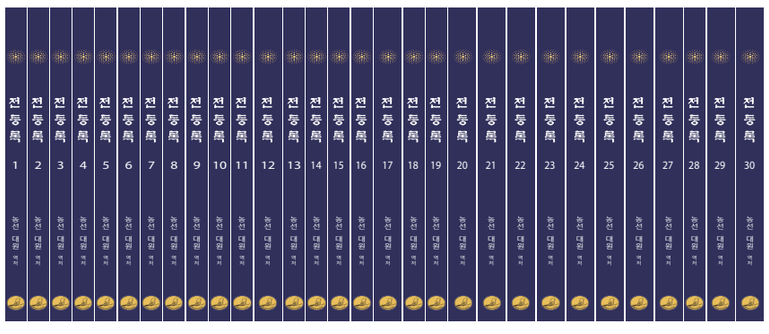
수덕사 만공선사의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의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불교 경전의 정수인
대방광불화엄경 완간!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출간 완료!

화엄경 81권 세트 100만원 (출판 기념 할인)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
전등록 30권에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밝혀 보이다

농선 대원 선사는 불교의 최고 경전인 ‘화엄경 81권’을 완간하고, 선문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30권’ 1,463칙에 대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 최초로 전 공안을 맑은 물 밑바닥 보듯이 회통쳐 출간하였습니다. 그런 혜안(慧眼)으로 이번에 7불과 역대 조사들의 깨달음의 진수가 담긴 선종 최고의 공안집인 ‘전등록 30권’을 조사(祖師)마다 선리(禪理)의 토끼뿔을 더해 닦아 증득할 수 있도록 밝혀 보였습니다. 이 바로보임에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듯이 계합하여 참나를 깨달아 몸이 내가 아닌 ‘마음이 내가 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등록 30권 도서출판 문젠
세트 45만원 (T.010-8670-1445)